

삼양식품 등 황제주, 코스피 랠리·업황호전에 주가 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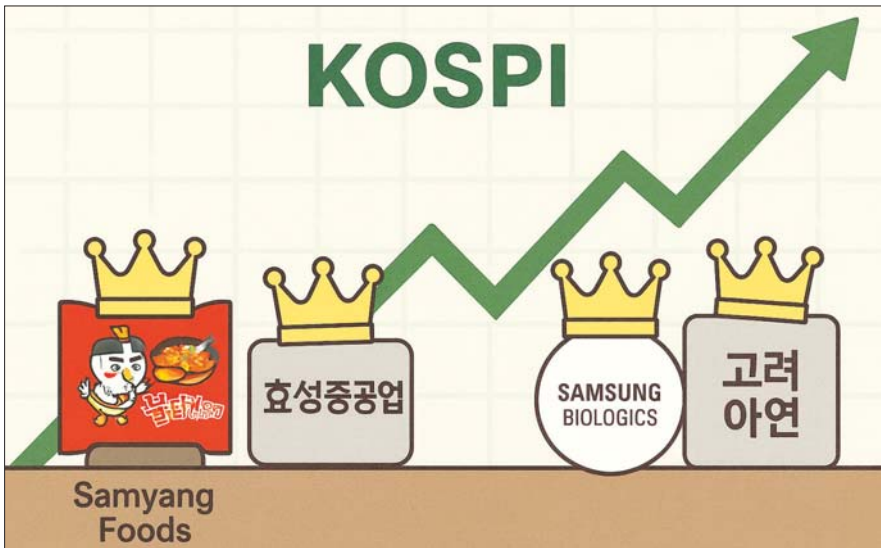
삼양식품, 가장 먼저 황제주 올라
불닭볶음면 인기로 공급부족 상태

효성重, 올해 주가 상승률 32%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지속 전망

삼바, 4·5공장으로 실적성장 견인
목표주가 200~230만원으로 상향

#, 사업을 하는 김모 씨는 2024년 5월 삼양식품이 농심 시가 총액을 추월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삼양식품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커질 수치를 놓고 증권사 프라이빗뱅크(PB)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확신을 갖게 됐다. ‘K-푸드’ 열풍이 불면서 삼양식품이 수익성, 성장성, 업계 1위 등 3박자를 갖췄고 이를 지속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그는 이때부터 삼양식품 주식을 사들여 최근 보유 주식 수가 3000주를 넘어섰다. 평균 매입 단가는 60만원 남짓. 최근 주가가 123만원을 넘어서면서 수익률이 90%를 웃돈다. 1년 반 남짓 만에 두 배가 넘는 돈을 벌어들인 셈이다. 그는 최근에도 삼양식품 주식 매수를 지속하고 있다.



ChatGPT로 생성한 ‘코스피 내 황제주(주당 100만원을 넘는 주식) 종목’ 관련 이미지.

김 씨처럼 ‘황제주’ (주당 100만원을 넘는 주식)를 사들인 동학개미(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코스피 상승 랠리와 업황 호전이 맞물리면서 효성중공업, 삼양식품, 고려아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주식의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다.

다만 황제주 등극이 향후 주가 상승을 반드시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과거 황제주였던 아모레퍼시픽·엔씨소프트 등의 고점에 들어갔던 투자자들이 수

년간 손실을 견뎌야 했기 때문이다. 일명 ‘황제주의 저주’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에서 주당 가격 100만원이 넘어가는 종목은 효성중공업(234만9000원), 삼양식품(123만5000원), 고려아연(155만5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177만8000원) 등 4개 종목이다.

가장 먼저 황제주 반열에 오른 것은 삼양식품이다. 지난해 5월 처음으로 100만원으로 넘어선 후 황제주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166만원까지

터치했다. 강은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양식품은 음식료 업종 내에서 가장 뚜렷한 해외 사업 성장성과 높은 수익성을 유지 중”이라며 “밀양2공장 가동에도 불구하고 불닭볶음면 공급 부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투자의견 ‘매수(Buy)’와 목표주가 200만원을 유지했다.

효성중공업은 가장 비싼 주식이다. 효성중공업은 국내 1위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업체다. 미국 AI(인공지능) 기업들의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주가 상승률은 31%를 기록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의 몸값도 오르고 있다. NH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은 효성중공업 목표주가를 나란히 300만원으로 상향제시했다.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026년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한 7조1539억원, 영업이익은 36.6% 증가한 9713억원으로 예상한다”며 “수익성 확대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목표주가를 290만원으로 상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호평을 받고 있다. 주요 증권사들이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주가를 200~230만원 수준으로 상향했다. 인적분할 전 기존 목표치

는 160만원 수준이다.

한승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5조3926억원, 영업이익은 2조4143억원으로 영업이익률(OPM) 45% 수준이 예상된다”며 “4공장 풀가동과 5공장 가동률 상승(19%)이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치는 미국 공장 매출을 아직 반영하지 않은 전망이다. 목표주가는 220만원을 제시했다.

성장성에 대한 의문과 황제주의 저주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황제주의 저주란, 주가가 100만원 넘는 황제주가 된 뒤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거나 기업 가치가 악화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다. 주가가 너무 높아지면 거래량이 줄고, 유동성이 악화된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과열된 기대와 함께 고점 신호로도 작용할 수 있다.

2021년 1월 황제주에 등극하며 게임주의 시대를 알렸던 엔씨소프트는 연이은 신작 게임 흥행 실패로 현재 주가는 20만원대까지 내려앉았다. LG생활건강도 ‘황제주’ 등극 후 중국 시장 부진과 내수 소비 침체, 브랜드 가치 하락 등으로 현재 주가는 27만 4000원으로 내려왔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24시간 거래, 증권 노동자·투자자 희생양 삼는 일”

거래소, 내년 말 ‘24시간 거래’ 목표
사무금융 노조, 연장 철회 기자회견
증권사, 인력 확보·시스템 정비 부담
연장 시 가격발견 기능 약화 가능성

한국거래소가 거래시간을 최대 24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화하자 노조와 증권업계,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인력·시스템 정비에 대한 부담과 투자 피로도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치적 썰기’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2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분부는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앞에서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 철회

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사무금융 노조는 “증권 거래시간 연장은 증권 노동자와 금융투자자를 넘어 증권 유관기관 및 금융투자업 전체 노동자를 희생양 삼는 일”이라며 한국거래소가 지금의 방향성을 유지할 경우, 정 이사장의 퇴출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시간 연장이 정 이사장의 치적을 위해 강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한국거래소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기관 업무보고’에서 거래시간 연장안과 관련된 사항을 발표할 바 있다. 호가가 이전되지 않는 프리마켓(오전 7시~8시), 애프터마켓(오후 4시~8시) 개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30분인 거래시간을 6월부터는 12시간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다음날인 13일에는 2027년 12월을 목표로 24시간 거래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거래소는 트레이딩서비스·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HTS·MTS) 등 온라인 주문으로만 제한해 노무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노조 측에서는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거래소가 거래시간 연장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자본시장 내에서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을 반가워하는 곳은 찾기

힘들다.

증권사들은 준비되지 않은 인력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속도를 맞춰 나가야 하는 부담이 존재한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 건 맞지만 대형사들도 반응이 긍정적인 편은 아니었다”며 “전산 장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인력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인 동시에, 시간도 빠듯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고 일어나니 청산당한 코인과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간다는 인식이 존재할 텐데, 관련 업계의 노무 부담만 증가시킬 수 있다고”고 봤다.

중소형사들의 고민은 더 크다.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대형사 대비 중소형사는 인력과 비용적인 여건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한국거래소가 말한 날짜에 맞춰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 당시에도 중소형사들은 실질 거래량이 높지 않아 투입된 자원 대비 효율이 적었다. 이번에는 더더욱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중소형사가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거래시간을 연장할 경우, 시장 유동성이 시간대별로 분산됨으로써 가격 왜곡이 나타날 수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가격발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 시장 안정성을 위한 인프라도 보강해야 한다”고 짚었다. /신하은 기자

재고 조작으로 순이익 부풀려…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적발

코넥스 상장사 불박에 과징금 등 의결

코넥스 상장사이자 골프용품 제조업체인 불박이 수년간 재고자산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에서 드러났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불박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고 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 계상하고 이를 통해 기말 재고자산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도별 재고자산 과대계상 규모는 2017년 65억9000만원, 2018년 118억9700만원, 2019년 145억4400만원, 2020



/금융위원회

년 177억5100만원, 2021년 155억5600만원에 달했다. 재고자산이 늘어나면서 매출원가는 줄고, 그 결과 순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구조다.

증선위는 또 불박이 외부감사인을 상대로 재고 수불부 수량을 조작한 자료를 제출해 정상적인 감사 절차를 방해한 점

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향후 3년간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상당 조치, 회사 및 임원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과징금 액수 등 최종 제재수위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외부감사인에 대한 제재도 함께 이뤄졌다. 증선위는 안전회계법인이 2017~2019년과 2021년 회계연도 감사 과정에서 재고자산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안전에는 과징금 부과와 손해배상공동금 50% 추가 적립, 불박에 대한 감사업무 3년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미래에셋운용, ‘휴머노이드 ETF’ 2종 인기

차이나·코리아휴머노이드 ETF
순자산 합산 규모 9000억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2일 ‘TIGER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 ETF’와 ‘TIGER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ETF’의 순자산 합산 규모가 90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TIGER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 ETF’의 순자산은 4834억원, ‘TIGER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ETF’의 순자산은 4445억원이다. ‘TIGER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 ETF’는 국내 상장 휴머노이드 ETF 중 순자산 1위를 기록했으며, ‘TIGER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ETF’는

연초 이후 개인 투자자 자금 3352억원이 유입되며 테마 ETF 중 개인 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

‘TIGER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 ETF’는 국내 상장 휴머노이드 ETF 가운데 최대 규모로, 중국의 로봇 제조 역량과 공급망, AI 상용화 속도를 기반으로 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투자한다.

‘TIGER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ETF’는 지난 6일 상장일 15분 만에 초기 설정 물량이 완판됐다. 한국 기업들이 ‘피지컬 AI’ 분야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자 투자자들의 국내 휴머노이드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해당 ETF는 올해 상장 이후 수익률 43.00%를 기록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